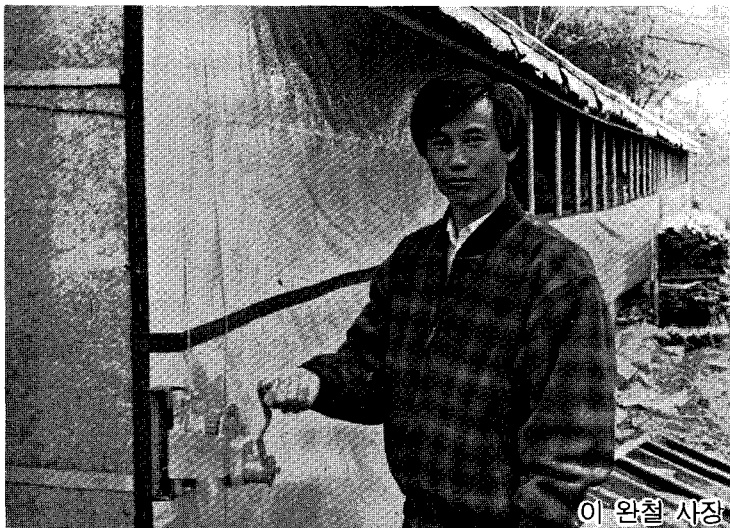


# 기자재, 완벽성 갖춰 양축가에 신뢰받아야...



이 완철 사장

**양**계산업이 국제화시대  
에 부응해 나가기 위  
해 일련의 시설자동화 추세  
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축산기자재 공  
급 업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축산기자재는 그간 수입  
상품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  
졌으나 수요증가와 더불어  
국내 제작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  
하고는 전부 생산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취재/이인수기자

그러나 아직도 영세한 업  
체들이 많아 기술개발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꾸준한 투자를 해온 몇  
몇 업체들은 이미 동남아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성장해  
지고 있다.

이미 한국축산기계공업협  
회가 출범되어 축산기자재  
업체의 권익을 대변해가고  
있어 업계발전이 한층 가속  
화될 전망이다. '70년대 중  
반부터 양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원치케텐만을 전문  
으로 제작하여 현재 80%의  
시장을 석권해가고 있는 경

기축산(대표 이완철)은 일반 공산품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축산기자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품을 특허시켜 나가야 살아남는다는 원리를 토대로 20여년간 원치커텐 제작에 몰두하였다.

경기도 고양군 관산2리에서 20여년간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수요도 결코 많지 않았던 원치커텐에 손을 댈 것은 인공수정사로 주로 종계장에서 활약하던 경험을 배경으로 축산기계를 만들던 다나축산에 입사하여 기자재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 '77년 현재의 경기축산을 설립, 독립하면서부터이다.

그당시에는 축산업의 기계화가 덜된 상태여서 대부분 수요는 양계장 뿐이었다. 설치품도 스크래퍼, 팬 등이 고작이었고 원치커텐은 상당히 잘 짓는다는 계사에서나 찾는 수준이었다. 외국에 비해 처음 원치커텐 제품은 시작의 단계에 불과 하였으며 처음 몇년 동안은 종계장에만 보급되다가 필드를 다니면서 홍보한 덕분에 산란계농장 6년, 육계농장 7년

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차츰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그당시 양돈업계의 경우 시설자동화 품목은 미비한 상태였으며 원치커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과연 나 자신도 돈사에 가능 할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은 종계장, 양계장(육계, 채란), 돈사는 물론 우사까지 설치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델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6 종류의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장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형태만도 4종류에 이른다.

원치커텐은 성능, 그외 견인력으로 평가 되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초창기의 원치커텐과 비교하여 보면 개폐시 작동력,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폐속도는 약 8배 정도 빨라졌다고 이사장은 이야기 하고 있다. 원치커텐은 기존 계사에서도 손쉽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 자신

도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재만큼은 최대한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경기축산 경영방침이라고 강조한다.

벽면에는 타포린재질 및 피복재를 사용하여 비닐보다 3배정도의 단열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품질고급화 및 대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라고 어려운 건축여건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기자재 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전망은 밝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까지 뛰어 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될때 국내시장 석권은 물론 수출 또한 가능하리란 전망을 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시설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에 적합토록 지어간다는 사세확장의 포부도 가지고 있다.